[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2020.05.03

잠 22:6

정성록 목사님

잠 22:6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 어린이 주일을 생각하면, 민 6:24-27이 생각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민 6:24-26

24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 옥한흠 목사님께서 교역자 수련회 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땅에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회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면 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안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목회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를 지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지구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 이미 오래 전부터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예견하였다.

☞ 기독교인 중 약 30%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그 30%의 대부분이 대학생들과 청년들이다. 이것이 코로나 19가 가져온 잃어버린 것이다.

☞ 유바 하라리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저술한 책 등에서 그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화될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하였다.

☞ 목회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현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인가?

☞ 우리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전념하여야 한다.

☞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녀이다.

☞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눈물이다.

☞ 현재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가 지나치다.

☞ 요새는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이다.

- ♣ 현재는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졌으며, 인구 절벽으로 달려가고 있다.
- ♣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있니?”라고 물으신다면…
- ♣ 자녀를 잘 키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 ♣ 자녀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이다. 즉 자녀들은 우리에게 잠시 맡겨 두었다고 하신다.
- ♣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양육하여야 한다.
- ♣ [가르치라]는 히브리어로 [히노크]라고 하며, [훈련시켜라]라는 의미이다.
- ♣ [아이]는 히브리어로 [라아르]이다.
- ♣ [파이디온]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양육되었던 아이를 의미한다.
- ♣ [라아르]는 젖먹이 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훈련시켜라]는 의미이다.
- ♣ 하나님에 대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있다.
- ♣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71:17-18

17 하나님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 하나님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 ♣ [나를 버리지 마시며]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후손에게 전하게 하소서라는 뜻이다.
- ♣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라
- ♣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라는 것이다.
- ♣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 ♣ 영적 계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 위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다.
- ♣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 ♣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자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 ♣ 영적 계승이라는 위대하고 중대한 위기 앞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 ♣ 암흑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한 부모를 통해서 사람을 키우셨다.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예비하셨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다.
요게벳을 통해 모세를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다.
-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가장 깊은 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신다. 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야 할까? 이스라엘의 후대를 위해 이교도의 문화가 있는 길갈에서 하나님만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다.
- ♣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시다.
-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나안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신다.
- ♣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다. 왜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일곱 족속을 멸하지 않으면 일곱 족속이 섬기던 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 ☞ 믿음의 계승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 ☞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딤후 3:14-17

-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된다.
- ☞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 ☞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 ☞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은 부모이다.
- ☞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 ☞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라.
- ☞ 한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 ☞ 록펠러가 말하길,
6살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나를 존재하게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달러를 받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예배에 가면 가장 앞에 앉으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가장 앞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돈을 벌어서 인류를 위해 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 ☞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 ☞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여야 한다.
- ☞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세웠다.
- ☞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

요점

-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여야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기도 제목

- ☞ 웨마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입학하게 하시며,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적용

- ☞ 기도할 때 웨마학교를 위한 기도하기